

제1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2021 THE 18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제1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THE 18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2021

건강도시와 조경

Landscape for Healthy City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설계업협회의회
주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회, (주)환경과조경
후원 (재)늘푸른

CONTENTS

건강도시와 조경

Landscape for Healthy City

- 4 인사말
- 5 축사
- 7 주제
- 8 심사 총평
- 9 운영위원·심사위원
- 10 심사위원 심사평

- 14 수상작 패널

대상

- 18 빌드 어 실드Build a Shield

금상

- 22 비정제 대지

은상

- 26 수용도시
- 28 소록도 105년, 치유의 첫걸음

동상

- 30 커넥티브 커뮤니티Connective Community
- 32 프로젝트 1.25
- 34 센서리 램프Sensory Ramp

장려상

- 36 빈집, 평등으로 채우다
- 37 힐링 마켓
- 38 무브 투 에비뉴Move to Avenue
- 39 멀티플 스페이스 바이 블랭크Multiple Space by Blank
- 40 오! 한강

입선

- 41 서부정류장, 흔적의 재구성
- 42 걸어서 틈 속으로
- 43 테라폼 데이터 폴루션Terraform Data Pollution
- 44 언더 파크 스테이션Under Park Station
- 45 포레스트 브리지Forest Bridge
- 46 가락 마켓
- 47 포레스타리엄Forestarium
- 48 웨이스트 아일랜드Waste is-land
- 49 엑셀런스 인 디자인Excellence In Design
- 50 숨 쉬는 지하, 쉼 있는 을지로

- 51 수상 소감

인사말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에 조경학과 학생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는 제1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오랜 전통을 가진 권위 있는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시대적인 화두를 중심으로 전국 조경 관련 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이 창의적인 생각을 펼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미래를 이끌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잘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도시의 삶에 자연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그린인프라를 다루는 조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기후 변화, 전염병, 경제 위기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 섬세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자초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지구 환경에 상생하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건강도시와 조경'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 우리 모두 애쓰는 이 시점에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깊은 고민으로 건강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경가의 역할에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공모전 전시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적 해결 방안과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으로 122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수준 높은 22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비록 수상은 못하였지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노고에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상자분들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학생 공모전을 지도해주신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또, 매년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을 지원해주시는 늘푸른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늘푸른 재단 노연상 이사장님과 임직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공모전은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설계업협회의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운영위원과 박명권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모전 전시를 맡아 수고해주신 환경과조경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 10.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운영위원장·(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조경진**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늘푸른 이사장 노연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경인들의 성대한 축제, '제1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올해도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을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한국조경학회 조경진 회장님과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환경조경대전의 주제인 '건강도시와 조경'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인 건강을 도시 조경에 담아내고, 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바쁜 생활 속에서 일상에 매몰되어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살기 쉬운 현대인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의 터전인 도시 공간 모두에 '건강'이라는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행사가 열린 마포문화비축기지는 친환경과 재생,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문화공원으로 도시공원과 시민, 그리고 지역 사회의 건강에 주목한 본 환경조경대전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도시를 숨 쉬게 하며, 건강도시라는 개념의 확대를 위한 능동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늘푸른 재단은 지난 2000년 '늘푸른 환경조경설계 공모전'을 시작으로 한국조경학회와 인연을 맺어 이어왔으며, 자연과 인간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 학회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 재단입니다. 내화 단열 기술과 인공 토양 파라소로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 녹화에 기여하는 경동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비롯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경동나비엔, 두 후원사와 함께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경학도 여러분이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하며 이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은 모든 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재)늘푸른 이사장 **노연상**

축사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뒤바꾸어 놓은 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마스크 너머로 마주하며, 건강한 일상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요즘입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이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환경조경대전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없이 베풀어주신 늘푸른 재단 이사장님과 모든 관계자분에게도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생과 지속을 위해서는 도시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조경은 건강한 생활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자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경계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제1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주제는 '건강도시와 조경'으로 시대적 화두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여러분은 다양한 시각으로 대상지를 이해하고, 문제점과 잠재력을 찾아내 환경적 맥락에서 통찰력 있는 해법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 무한한 상상력에서 조경계의 미래를 엿본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작품을 출품해준 모든 학생 여러분 덕분에 환경조경대전이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드리며,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공들인 작품을 출품해준 참가자에게도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공모전 참여를 위해 지도해주신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그리고 환경과 조경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사)한국조경협회 회장 **이홍길**

주제

건강도시와 조경 Landscape for Healthy City

현대 도시의 등장과 함께 진행된 산업화는 기술과 과학의 급격한 발전을 촉진했고,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었다. 생산성 없는 땅들은 사치라는 듯 조금의 여백도 남기지 않을 기세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섰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수록 생활 환경은 척박해졌다. 편리와 공생을 위해 사람이 모인 도시는 곧 주거, 교통, 쓰레기, 환경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인구 과밀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최초의 산업혁명 이래로 모든 도시는 인간에게 독을 뿜었고, 도시 계획과 조경 계획은 그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세기 말부터 'Health for All' 원칙에 기반해 건강도시Healthy City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도시'란 도시민의 건강과 동시에 '도시의 건강성'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도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 확보는 물론, 도시와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생과 지속을 위한 다차원적·다분야적 협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렇게 얻어진 건강한 삶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요구된다.

건강과 생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주민참여는 조경가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건강'은 이미 19세기에 옴스테드가 뉴욕 센트럴 파크를 조성할 때부터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제시한 처방전이었던 것이다. 또한 건강은 보건, 의료, 환경, 복지, 경제, 문화, 교육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으며, 도시는 이 복잡한 관계를 품는 유기적 플랫폼이다.

그렇다면 산업 시대를 지나 '스마트 도시' 시대에 접어든 지금, '도시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건강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경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건강도시와 조경'이라는 큰 키워드 아래, 보다 확장된 도시 및 환경적 맥락에서 통찰력 있는 질문과 담론을 형성할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심사 총평

2021년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예년보다 많은 122개 작품이 출품되어 어느 해보다 열띤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도시와 조경'이다. 현대 도시의 등장과 함께 진행된 산업화는 도시로의 집중을 야기했고 생활 환경은 더욱 척박해졌다. 인구 과밀은 주거·교통·환경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 세계 조경가들은 녹지 확보는 물론 도시와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생과 지속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기후 액션Climate Action'과 세계조경가협회FLA의 2020년 '생태 및 지역사회 보건에 관한 선언FLA Declaration on Ecological and Community Health'은 모든 조경가가 건강하고 포용적인 환경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심사를 진행하며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이 '건강도시와 조경'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고민한 여러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 우선 대상지의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했다. 도시는 물론이고 골프장, 쓰레기 매립장, 고립된 섬, 가로, 골목길, 워터프런트, 마을 유희지, 해변, 지하 공간, 오래된 산업 단지 등 매우 다채로웠다. 건강도시를 구현하는 방법론은 몇 갈래로 나뉘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건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식 등의 접근법이 있었다. 일부 작품은 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 결여된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다소 아쉬웠다.

대상작 '빌드 어 실드Build a Shield'는 유희 공간의 지형을 조작해 훼손된 도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교통 받아온 지역민을 위한 공간을 계획했다. 지형 조작과 공간의 재설계를 통해 훼손된 도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대안을 제시한 점이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금상작 '비정제 대지'는 도시 내 골프장이라는 독특한 대상지를 선택했다. 자연주의로 포장된 정제된 자연 공간을 오랜 기간 정화하고 회복시켜 도시민에게 비정제 상태의 진짜 자연을 마주하게 한다는 전략이 돋보였다.

은상작 '수용도시'는 시흥의 물과 시민의 생활을 하나로 엮기 위해 하천, 갯골, 바다, 호수로 이어지는 수변을 새로운 생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일상에서 물을 인식하고 활용하게 한다는 전략이 우수했다. 또 다른 은상작 '소록도 105년, 치유의 첫걸음'은 사회적, 물리적으로 단절된 외로운 섬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장기 계획을 통해 건강한 섬으로의 미래를 제시한 점이 좋은 평을 받았다.

동상작 '커넥티브 커뮤니티Connective Community'는 병원과 공원을 연결해 환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상생을 꾀하는 전략이 돋보였고, '프로젝트 1.25'는 웨이어 펠란Weaire Phelan이라는 독특한 구조체를 이용해 영종도 해안의 직선화에 따른 '연안의 죽음'으로부터 갯벌을 되살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우수했다. '센서리 램프Sensory Ramp'는 장애인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램프라는 통합된 동선 체계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오픈스페이스를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열띤 경쟁 속에서 치러진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은 대상지의 선정에서부터 개념 설정, 기본 구상, 마지막 결과물을 완성할 때까지 수많은 토론과 결정의 산고를 겪었을 것이다. 힘들어 완성한 작품이 제출 마감 시간을 넘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수상작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많아 안타깝다. 하지만 졸업 후 사회에서 겪어야 할 시련을 생각하면 이 또한 교육의 과정이다. 결과보다 팀원들과 함께했던 그동안의 지난한 여정을 소중한 추억으로 삼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이번 공모전은 사회에서의 힘찬 출발을 예고하는 또 다른 시작이다. 기쁨도 아쉬움도 크겠지만 지나온 준비 과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용기를 갖길 바란다.

2021. 10.
심사위원장·그림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박명권

운영위원·심사위원

운영위원

위원장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조경학회 회장

위원

서영애 기술사사무소 이수 대표, 한국조경학회 기획부회장

정태열 경북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장

김도균 순천대학교 교수, 한국조경학회 호남지회장

오화식 사람과나무 대표, 한국조경학회 설계분과부회장

박명권 그림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

노연상 재단법인 늘푸른 이사장

남기준 월간 환경과조경 편집장

심사위원

위원장

박명권 그림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위원

김정윤 오피스박김 대표

김현민 스튜디오일공일 대표

양대모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윤주 LP SCAPE 대표

이호영 HLD 대표

정재윤 JCFO 소장

심사위원 심사평

김정운 오피스박킴 대표

시대에 따라 각 직업에 요구되는 역할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동시대의 사회적 요구는 물론, 중·단기 미래를 예측하여 전문가를 길러 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일 것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새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의 합이 더 나은 환경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좋은 프랙티스'의 책임일 것이다. 이러한 평소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번 심사에 임했다. 아쉬웠던 점은, 여전히 수사 rhetoric에 의존하는 무의미한 영문 이름 붙이기와 입체적 대상지를 평면으로만 설명하는 2차원적 접근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었다. 대상과 금상 수상작은 명확한 설계 의도를 가지고 단면, 평면, 입체적 모형을 통해 다각적으로 대상지를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점에서 윗등했다. 특히 산이 많아 고밀의 도심에서조차 능선과 계곡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조경의 핵심 가치core value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지표와 지하의 지형 모두를 설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으로 조경을 직업으로써 이어가게 된다면 이번의 수상에 만족하지 말고 기후 변화 시대에 조경에 요구되는 엔지니어링적 지식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

김현민 스튜디오일공일 대표

어느덧 지구의 기후 변화를 하루가 다르게 실감하는 시대가 되었다. 2015년 파리기후 변화협약을 통해 발효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낭만적 선언은 고작 몇 년 사이, 몇십 년 이내에 우리 세대가 맞닥뜨릴 미래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으로 변경되었다. '제1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의 주제인 '건강도시와 조경Landscape for Healthy City'은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건강함', '건전성'에 기반한 조경의 기본적인 역할에 비중을 두고, 보다 확장적인 관점으로 다루어졌음에 공감한다. 어느 해보다 많은 약 120여 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그에 걸맞은 다양한 공간 및 이슈,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점은 대단히 흥미로웠다. 하지만 현안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도전 의식을 보여준 작품의 수는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대상작을 포함한 다수의 수상작은 이러한 점에서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응모한 많은 작품들이 앞으로 우리 조경가가 다루어야 할 다양한, 때로는 생각도 못해본 이슈를 꺼내어 놓았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하였지만 각고의 노력을 하였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양대모 국토교통부 사무관

조경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 설계, 시공, 관리하는 일이다. 조경의 다양한 면모 중 공간적 개념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조경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에 의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공간은 시민들이 즐거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정해진다. 이러한 점에 집중해 출품된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시각에서 사람들을 배려한 우수한 작품이 많아 조경학도의 설계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건강도시와 조경'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전국에서 120여 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조경 공간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내가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도 되고 부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움이 컸다. 나를 제외한 모든 심사위원이 조경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이었기에, 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가족과 같이 그 공간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하나하나 느껴보았다. 공원뿐만 아니라 산업 단지, 시장, 학교, 상가, 주차장, 폐건물, 골목길, 동네 자투리땅 등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삼아 설계를 풀어낸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새로움을 향한 실험 정신은 앞으로 조경 문화의 다양성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출품하신 모든 분에게 이번 공모전이 좋은 경험으로 남기를 바란다. 작품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을 참가자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윤주 LP SCAPE 대표

최근 들어 기후 온난화, 코로나19 등의 복잡하고 새로운 도시·사회의 문제들로 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는 외부 공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건강 도시와 조경Landscape for Healthy City'이라는 주제와 함께 금번에 제출된 120여 개가 넘는 작품들을 접하면서 현 도시가 직면한 건강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이 사회적 약자, 새롭게 떠오른 MZ세대, 환경 오염 피해자, 코로나 블루 환자들의 건강을 진단하고 도시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대상 '빌드 어 쉴드Build a Shield'는 유류 공간의 지형을 조작하고 공간을 재구성하여 도시와 사람이 함께 공생하며 쇠가루로 고통받는 사월 마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콘셉트로, 이번 공모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었다. 금상을 받은 '비정제 대지'는 제목만으로도 다수 심사위원의 이목을 끈 것 같다. 이슈가 되고 있는 태릉 골프장을 대상으로, 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토양 정화와 함께 '비정제 대지'를 도시민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개념으로 건강한 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탁월한 작품이었다. 'Health for All'에 기반한 도시민과 도시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누

구든 환경적·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로새기며 조경가의 지속적인 방안 모색과 실무에서의 적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조사, 건강한 사람·도시·자연에 대한 고찰, 퀄리티 높은 디자인, 짜임새 좋은 패널 구성 등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모든 학생의 노력과 열정에 큰 찬사를 보낸다.

이호영 HLD 대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이란 인간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깨닫고 있다. 모든 외부 공간을 다루고 있는 조경가의 사명감이 더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건강도시와 조경'이라는 이번 환경조경대전의 공모 주제는 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 조경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녹지의 양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환경의 질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도시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가고 있고, 각 지역의 문화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이제 잘 알고 있다. 시각적으로 녹색인 공간이 아니라 정말 작동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생태, 사회, 문화, 과학, 경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공모전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대상지는 하천, 건물, 가로, 시장, 마을, 공원, 섬, 해안, 매립지, 골프장 등 다양해서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다만 좋은 대상지와 주제를 선정하고도 녹지 조성과 같은 일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 머문 작품들의 경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에 과학적인 근거와 리서치를 바탕으로 매립지를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전환시킨 작품과 훼손된 땅을 단순히 나무를 심어서 녹지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간이 되는 토양 환경의 회복을 다룬 작품은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환경조경대전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으로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정재운 JCFO 소장

올해로 미국에 온 지 만 20년이 되었다. 유학 후 곧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2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라떼'처럼 들리겠지만 손으로 도면을 치고 청사진을 그리고 '한판 뜨기'를 하던 내 학부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들에서 경이로움마저 느껴진다. 심사라기보다 학생들의 깊이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을 풀어내는 높은 수준의 표현 기법을 감상하는 듯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한국의 조경 설계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고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출품된 작품의 수준이 높았던 만큼 심사에 즐거웠다. 결과는 입상작과 비입상작의 수준 차이라기보다 어떤 작품이 좀 더 공모 요강에 맞는 작품이었던지의 차이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작품을 출품한 모든 학생에게 축하의 말과 작품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출품작 수가 늘었다는 점도 아주 고무적이다. 조경 설계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자연·환경적 문제들의 최일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다. 이 의미 있는 일에 더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준다면 조경 분야는 더 빠르고 수준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설계자의 생각을 좀 더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더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매 순간 필요 이상의 정보를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마주

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만큼 정보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져 있는 정보가 설득력을 갖기 쉽다. 공모전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도 설계의 바탕이 된 모든 정보를 나열한 후 "이만큼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설계입니다"라고 말하는 식의 도판 구성과 발표 방식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전에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표현 방법에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 출품한 모든 학생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 조경가로서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한다.

대상작 '빌드 어 실드' 동영상



금상작 '비정제 대지' 동영상



은상작 '소록도 105년, 치유의 첫걸음' 동영상



은상작 '수용도시' 동영상



2021 THE 18TH NATIONAL EXHIBI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제1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건강도시와 조경 Landscape for Healthy City

대상

빌드 어 실드 Build a Shield
이성진·오다연·임비아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금상

비정제 대지
유가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지윤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은상

수용도시
조수빈·박한별·전소희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소록도 105년, 치유의 첫걸음
배유경·정은선·양예진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동상

커넥티브 커뮤니티 Connective Community
Jin Biao · Gao Ruilin · Ke Fangni · Yuan Mingwei · William Virgilio Tejeira Restrep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프로젝트 1.25
김성민·박공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센서리 램프 Sensory Ramp
임주영·김희주·이수빈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

장려상

빈집, 평등으로 채우다
신재우·이원영·안소정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힐링 마켓
이주호·Li Fei·Bahmatova Nerlovic Margarita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무브 투 애비뉴 Move to Avenue
정승현·김진술·김효정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멀티플 스페이스 바이 블랭크 Multiple Space by Blank
김예진·김다예·서다현·최명철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오! 한강
박준석·고서연·김나유·이규진·이재홍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입선

서부정류장, 흔적의 재구성
정지민·김재운·권지은·곡효우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전공

걸어서 틈 속으로
김민지·양은아·박지민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테라폼 데이터 플루션 Terraform Data Pollution
이현승·박성은·이주영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언더 파크 스테이션 Under Park Station
양유준·하유리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포레스트 브리지 Forest Bridge
유소영·김은빈·심세용·김영석·서민정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가락 마켓
Selin Altun · Morvarid Kabiri · Tian Qingwen · Xia Yuqiong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랜스케이프어바니즘전공

포레스타리엄 Forestarium
김태현·양종은·최진혁 공주대학교 조경학과

웨이스트 아일랜드 Waste is-land
김범준·김혜민·박정현·신유아·김명훈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엑셀런스 인 디자인 Excellence in Design
송윤주·이승준·한주희 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이지선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숨 쉬는 지하, 쉼 있는 을지로
박지영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안이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